

# AI페퍼스 역사적 첫 경기... 광주, 배구 열기 '후끈'



19일 AI페퍼스와 KGC인삼공사의 도드람 2021~2022 V리그 개막전 경기가 열린 페퍼스타디움 경기장. 페퍼스는 이날 1세트를 25-16으로 가져오는 등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전용구장 변신 페퍼스타디움 광주시민·배구팬 600여명 입장 가수 김연자 개막 공연... 구단·선수들 "팬 위한 경기 하겠다"

마침내 광주에도 '배구의 계절'이 찾아왔다. 19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옛염주체육관)에서 AI페퍼스와 KGC인삼공사의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가 진행됐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펼쳐지는 프로 배구 경기. 페퍼스타디움은 겨울 스포츠 시대를 맞이한 광주시민들의 기대감과 '도쿄올림픽 4강 신화'에서 이어진 배구팬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페퍼스타디움에는 광주 시민과 배구 팬 600명이 모여들었다. AI페퍼스는 정부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페퍼스타디움 내 1~2층(3000여석)을 개방하고, 이 중 20% 수준인 600석에 입장을 허용했다. 관객들은 오후 6시 개막 전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객석을 속속 채우며 AI페퍼스의 등장을 기다렸다. <개막전 축하공연 '후끈'...광주 출신 김연자 '감동 새로워' 개막전에 앞서 화려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AI페퍼스 치어리더팀의 화려한 군무부터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미니 콘서트, 가수 김태우와 함께하는 애국가 제창까지 이어져 흥을 돋웠다. 광주 출신인 김연자의 무대가 돋보였다. 김연자는 '워해 반갑소이'이란 인사말로 등장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다. 김연자는 이날 AI페퍼스 창단을 기념해 광주를 대표하는 신곡 '무조건 광주로'를 발표했다. 그는 '광주로 광주로/ 무조건 광주로/ 사랑을 찾아 무조건 갈 거야'라는 가사로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블링블링', '아모르파티' 등 히트곡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광주가 고향인데,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른 게 너무 늦었다. 여러분도 광주를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말했다. 또 "정말 영광이고 행복하다. 우리 광주에 겨울스포츠를 담당해 줄 배구단이 창단했다. 앞으로도 AI페퍼스 배구단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각지로부터 모인 뜨거운 '환호' AI페퍼스는 벌써부터 '팬덤'이 형성될 분위기다. 관객들은 저마다 AI페퍼스 로고가 그려진 빨간 피켓을 흔들며 열띤 응원을 펼치며 새 배구단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은 광주뿐 아니라 전남 각지의 배구팬이 지역 연고 배구단을 응원하기 위해 페퍼스타디움을 찾아왔다. 김문주(18·여수)양은 "최근 도쿄올림픽에서 여자배구단이 활약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리 지역 배구단이 생겼다는 소식에 친구와 함께 광주까지 달려왔다"며 "힘들게 연습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AI페퍼스가 우승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주장 이한비 선수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준선(23·경남 김해)씨도 "배구를 8년 정도 봐왔는데, 새로운 팀이 첫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광주를 들렀다"며 "10년 전 기업은행이 신선했을 때와 또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판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민(19·남구 진월동)씨는 "배구 2년 정도 보면서 인삼공사 이소영 선수를 응원해 왔는데, 우리 지역팀과 개막전에서 맞붙는 모습을 보니 두 배로 즐겁다"며 "AI페퍼스가 앞으로 경기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웃었다. <완전히 탈바꿈한 페퍼스타디움, '선수 표정까지 생생하게' 리모델링을 거친 페퍼스타디움도 1987년 준공 이후 34년 세월을 몰라볼 만큼 낡은 모습을 이뤘던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페퍼스타디움은 기존 종합 체육관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배구 전용 구장으로 변신했다. 관객 친화형 경기장으로서 면모가 돋보인다. '선수 숨소리까지 들릴 듯' 경기장과 관객석이 가깝다는 실내 스포츠만의 매력도 특별히 살렸다. 코트 주변 3개면에 가변식 500석을 설치한 덕에 가장 가까운 관객석과 코트 사이 거리는 불과 10여m 안팎이다. 경기장 상단에 설치된 2개 대형 LED전광판을 통해서도 선수들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관객들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경기장 규모가 큰데다 팀 컬러에 맞게 예쁘게 잘 꾸며져 감탄했다"고 입을 모았다. 영광일(81·서구 화정동)씨는 "옛날에 핸드볼 경기를 보러 염주종합체육관을 들렀던 기억이 난다. 경기장이 몰라보게 바뀌어 보는 눈도 즐겁다"며 "좋은 구장에서 AI페퍼스가 선전은 물론 후배 양성까지 배구 발전에 큰 힘이 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페퍼스 승리를 위해...각오 다지는 AI페퍼스 실전에 뛰어드는 구단의 다짐도 남다르다. 장매주 구단부는 개막식에서 "오늘은 AI페퍼스에게 광장의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다. 오늘은 AI페퍼스가 태어나는 날"이라며 "6개월 전에 연맹으로부터 창단 승인이 났고, 9월 9일 우리는 처음으로 팀으로서 연습을 했다. 다른 팀과 우리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다른 팀은 2~3년 전부터 호흡 맞추고 경기에 왔지만, AI페퍼스는 연습게임조차 4~5번밖에 못했"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시즌은 도전자로서 팬들과 약속하겠다. 가장 어린 팀으로서 열정을 갖고 제일 열심히 하겠다. 즐길 것을 약속하겠다. 팬을 위한 계임을 하겠다"고 말했다. AI페퍼스 선수들도 힘찬 함성과 파이팅으로 구단주와 약속을 다짐했다. /유재천 기자 yjyou@kwangju.co.kr

## 배구경기장 관중 입장... 생기가 돈다

선수들의 파이팅 소리, 심판 휘슬 소리, 버저 소리 등으로만 가득했던 프로배구 현장에 생기가 돈다. 프로배구 V리그 남녀부 14개 전 구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조정안에 따라 2021~2022 시즌 홈 경기에서 관중을 받기로 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을 연고지로 쓰고 있는 남자부 삼성화재(대전)와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광주)은 가장 먼저 관중 입장을 진행했다. 19일 홈 개막전에 각각 20%의 관중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전력과의 홈경기에 약 500석의 관중석을 개방했다. 신

생구단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KGC인삼공사와 홈 개막전에 약 600석을 오픈했다. 두 경기는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수 있다. 20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구장의 빗장도 열린다. 남자부 KB손해보험은 20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캐피탈과 홈 경기에 20%의 관중을 받는다. 의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거친 페퍼스타디움도 1987년 준공 이후 34년 세월을 몰라볼 만큼 낡은 모습을 이뤘던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페퍼스타디움은 기존 종합 체육관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배구 전용 구장으로 변신했다. 관객 친화형 경기장으로서 면모가 돋보인다. '선수 숨소리까지 들릴 듯' 경기장과 관객석이 가깝다는 실내 스포츠만의 매력도 특별히 살렸다. 코트 주변 3개면에 가변식 500석을 설치한 덕에 가장 가까운 관객석과 코트 사이 거리는 불과 10여m 안팎이다. 경기장 상단에 설치된 2개 대형 LED전광판을 통해서도 선수들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관객들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경기장 규모가 큰데다 팀 컬러에 맞게 예쁘게 잘 꾸며져 감탄했다"고 입을 모았다. 영광일(81·서구 화정동)씨는 "옛날에 핸드볼 경기를 보러 염주종합체육관을 들렀던 기억이 난다. 경기장이 몰라보게 바뀌어 보는 눈도 즐겁다"며 "좋은 구장에서 AI페퍼스가 선전은 물론 후배 양성까지 배구 발전에 큰 힘이 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페퍼스 승리를 위해...각오 다지는 AI페퍼스 실전에 뛰어드는 구단의 다짐도 남다르다. 장매주 구단부는 개막식에서 "오늘은 AI페퍼스에게 광장의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다. 오늘은 AI페퍼스가 태어나는 날"이라며 "6개월 전에 연맹으로부터 창단 승인이 났고, 9월 9일 우리는 처음으로 팀으로서 연습을 했다. 다른 팀과 우리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다른 팀은 2~3년 전부터 호흡 맞추고 경기에 왔지만, AI페퍼스는 연습게임조차 4~5번밖에 못했"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시즌은 도전자로서 팬들과 약속하겠다. 가장 어린 팀으로서 열정을 갖고 제일 열심히 하겠다. 즐길 것을 약속하겠다. 팬을 위한 계임을 하겠다"고 말했다. AI페퍼스 선수들도 힘찬 함성과 파이팅으로 구단주와 약속을 다짐했다. /유재천 기자 yjyou@kwangju.co.kr

같은 날 김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여자부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홈팀 한국도로공사는 김천시와 논의 끝에 현대건설과 홈 개막전을 무관중으로 치르고, 두 번째 홈경기인 29일 페퍼저축은행전부터 유관중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자부 OK금융그룹(안산)은 21일, 한국전력(수원)은 23일, 우리카드(서울)은 24일, 현대캐피탈(천안)은 27일, 대한항공(인천·이상 연고지)은 30일 경기부터 관중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자부는 IBK기업은행(화성·21일), KGC인삼공사(대전·23일), 현대건설(수원·24일), GS칼텍스(서울·27일) 순으로 홈구장 관중석 문을 연다. 수도권 구단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고, 비수도권 구단 구장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관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광주, 배구의 도시로 활짝 꽃피기를"

###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AI페퍼스 광주유치의 주역 "내년 남녀 초등학교 팀 창단"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19일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역사적인 첫 경기를 치렀다. 광주 연고배구단이 창단해 경기를 치르는 것은 광주 배구 역사상 처음이다. 전갑수(61·사진) 광주시배구협회장에게는 누구 보다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협회장으로 취임한 지 6년만에 거둔 결실이기 때문이다. 전 회장은 자신의 공약인 프로배구단 광주 유치에 위해 남다른 공을 들였다. 한전 남자프로배구단 유치운동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프로배구단 창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었다. 스포츠계에서는 AI페퍼스 광주유치의 주역으로 그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배구인으로서 광주 연고팀의 경기를 보게 돼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프로야구, 축구가 시즌을 마치면 곧바로 동계스포츠를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광주는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광주가 도약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광주는 프로배구단을 유치함으로써 배구 육성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AI페퍼스 배구단에서 광주시에 유소년 장학금 1억원을 내놓았고, 대한배구협회에서도 연고지 유소년 육성 자금 8000만원, 페퍼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유소년 육성을 위해 6800만원,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도 사재 100만원(연간 1200만 원을 출연했다. 모두 2억6000만 원을 팀 창단과 선수육성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치신청서에서 광주가 제시한 2부 리그팀 창단도 앞당겨야 한다. "팬들이 홈 구단을 키워간다는 의지를 갖고 믿고 응원해 주시면 페퍼스에 남을 것입니다. 선수 전용숙소등인 프라가 채워진다면 홈구장으로서 광주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야구·축구처럼 배구도 2부리그가 운영된다면 선수육성과 프로배구 활성화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프로배구 출범 이래 처음으로 광주에서 2부팀이 창단한다면 광주는 대한민국 배구사에 남을 도시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배구협회는 한전 남자배구단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전배구단은 2019년 광주유치 불이 일었으나 결국 수원에 남았다. 내년은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 계약이 만료되는 해여서 광주유치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배구단 광주유치의 경험을 축적한만큼 시민과 광주시,배구협회가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전이 수원에서 선수단을 운영하더라도 광주를 연고로 삼고 홈경기를 광주에서 치르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전 남자배구단을 포함해 광주가 남녀 프로배구단을 보유하게 된다면 국내외에서 광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시민들에게도 스포츠 향유권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갑수 배구협회장은 '배구'를 축으로 광주가 스포츠 마케팅이 꽃 피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배구도시 광주의 위상을 되찾고 스포츠가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꿈이다. "프로구단과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의 단장과 경영진 등이 경기가 열리는 광주에 장기간 머물게 되면서 광주는 도시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자체, 기업에서 광주를 마케팅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이 열리게 되지요. 종국에는 스포츠를 축으로 지역 경제, 관광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